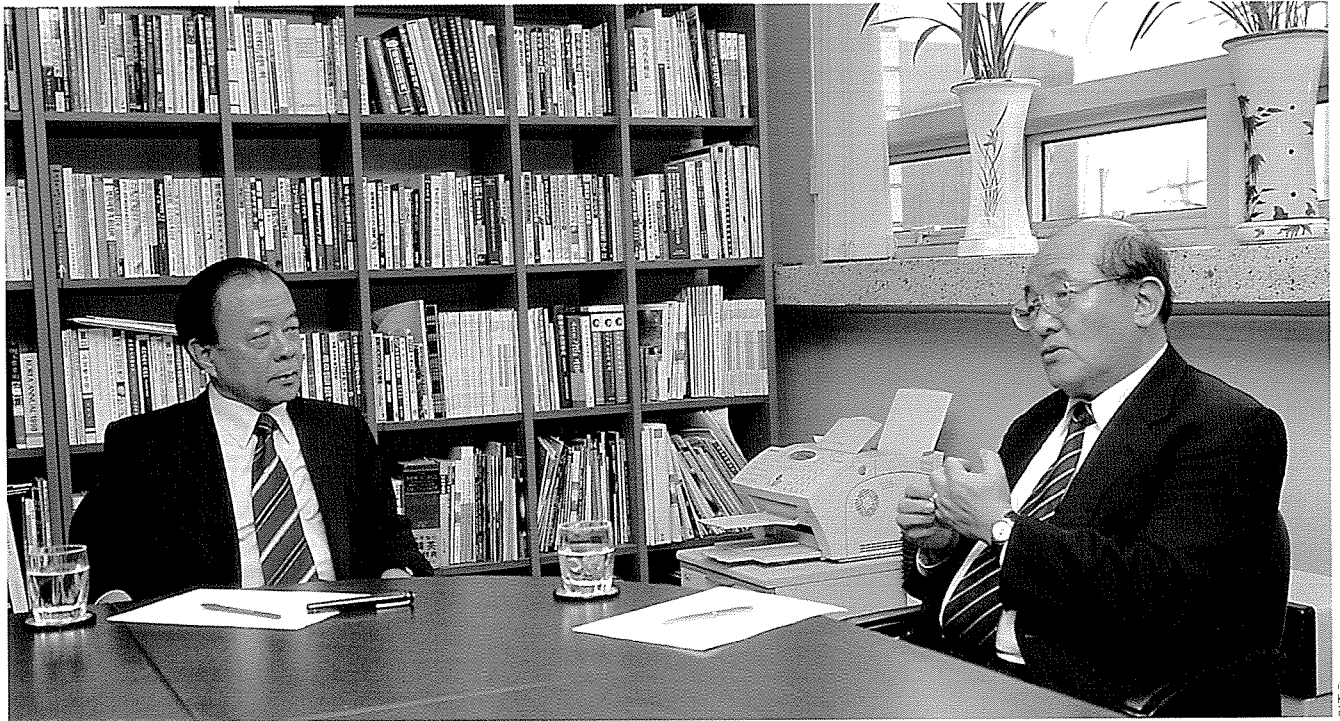


# 과학이 문화의 한 축으로 뿌리 내릴 시기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최영환** VS 한서대 교수 **강신구**



최영환 이사장(위 사진 왼쪽)과 강신구 교수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담론인 '과학문화'에 대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 '과학문화'라는 말이 부쩍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과학문화'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과학문화'를 꽃 피울 준비가 돼 있는 것일까? 과학 기술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불도저와도 같은 추진력을 지녔다는 최영환 이사장과 과학 분야의 언론인으로 오래 일한 강신구 교수가 만나 나누는 우리 사회의 '과학문화론'.

**강** 먼저 '과학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며 뿌리를 내릴 시기라는 데 대다수의 사

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에 대한 푸대접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과학이 수단으로만 쓰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과학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학은 그 자체가 문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주장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국민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것, 즉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수단으로서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과학을 이해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역할과

....  
강신구(강으로 표기)  
최영환(최로 표기)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인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견인적 역할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사유와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 즉 과학 자체를 문화로 향유하는 것입니다. 사회 현실에 바탕을 둔 경제 발전을 위한 견인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과 과학 자체가 문화라는 이상적 입장, 이 두 가지가 조화될 때 바람직한 의미의 과학문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 이제 과학기술은 단순히 지식 생산 상태로 그칠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화된 진실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체화를 시킨다는 것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들어가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의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 좋은 말씀입니다. 체화를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과학문화는 과학에 대한 지적 인식의 차원을 넘어 그것이 과학정신으로 집약되어 사회구성원의 의식 깊은 곳에 체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정신은 합리와 효율과 창의와 혁신, 이 네 가지가 집약된 것을 말합니다.

이 과학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체화될 때 과학문화가 확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문화사업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최이사장님은 과기부의 창립 멤버이고 과학재단을 만드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추진력도 뛰어나서 '불도저'로 통합니다. 앞으로 과학문화재단사업의 중점방향은 무엇입니까?

**최** 올해 저희 과학문화재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매스미디어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우리 스스로의 매체를 확보하느냐, 또 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예컨대 국내 신문사 등 각종 인쇄매체는 물론이고 TV 등 영상매체와 제휴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방송도 활성화시켜나가는 등 우리 스스로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들이 그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위성방송에서의 과학 전문 채널은 청소년들을 과학교육과 연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대중매체에 공급할 수 있는 쉽고, 재미나고, 유익하고, 질 좋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학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 과학자들끼리만 공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회의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과학의 사회화가 진행되면 그것이 곧 과학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과학문화와 관련한 풍토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이 나하고는 별개인 것, 과학기술자가 연구실 등에서 하는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 문화사업, 과학 대중화사업을 말하면 삼류 과학기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많은 과학자들의 선입견입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과학과 사회는 계속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 그렇다면 과학문화재단에서 이러한 해결

“  
올해 저희 과학문화재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매스미디어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우리 스스로의 매체를 확보하느냐, 또 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느냐입니다.

”

66

과학문화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려면 당연히 새로운 차원의 과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만간 과학문화에 초점을 둔 범사회적 차원의 '사이언스 코리아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99

책을 실행에 옮긴 예가 있습니까?

**최** 과학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 420여 명의 과학자들을 초빙해서 과학앰버서더로 위촉하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을 함께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의 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넷과학신문이 활성화되고 과학전문채널이 가동되면 앞으로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적극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 과학자의 과학에 대한 공헌도 혹은 과학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 미만인데 다른 OECD 국가들은 40%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지나치게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대대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재원을 지원받았으면 반드시 홍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들은 자기 연구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생명공학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최소 3%, 많으면 7%까지 떼어 가지고 자신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래의 과학문화운동이 기존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사업(PUS)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대상이 연구개발사업도 포함하는 사업(PUR)으로 확대되고 있죠.

최근 OCED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자원 투입 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연구성과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최하위에 속합니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한계

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 이공계대학원생 정원 미달 문제, 연구개발 생산성의 저하 등등이 바로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성장에만 힘을 쏟았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전략적 기반에는 소홀히 해 온 결과입니다. 무형적 기반의 대표적인 것이 다름 아닌 과학문화의 확산입니다. 이제야말로 과학문화 쪽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를 대통령 프로젝트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요즘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과학문화에 초점을 둔 범사회적 차원의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강**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를 구상하신 배경에 대해 좀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내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바로 사회문화적인 기반이 확고해야 합니다. 과학문화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려면 당연히 새로운 차원의 과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대통령 특별사업으로 설정하고 국가원수 차원에서 진두지휘한다면 사회 각계에 과학 마인드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이언스 코리아 프로젝트'는 그러한 출발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 과거 정권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립 서비스에 그쳤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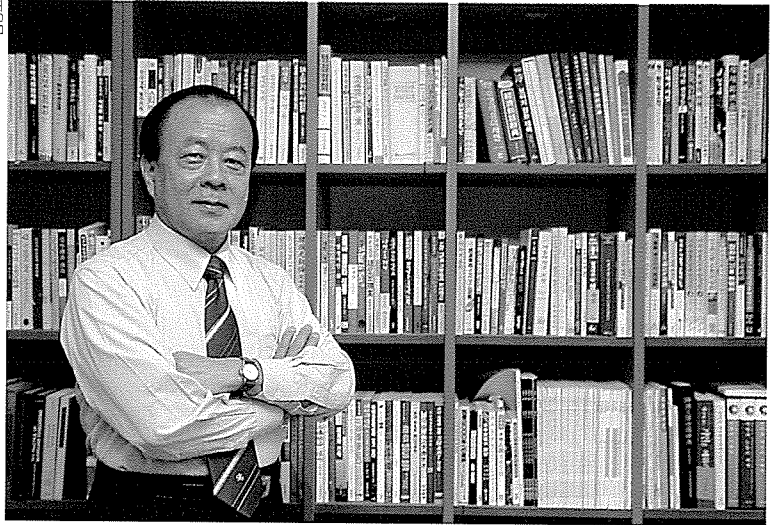
**최** 지난해 8월 포항에서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축제 기간 내내 비가 억수로 왔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에는 미처 관람을 못한 사람들이 일주일만 더 축제를 연기시켜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부득이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인체의 신비'전을 보십시오.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아이디어와 소재만 좋으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명백히 그리고 부단히 표시해나간다면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께서 직접 과학문화운동의 선봉에 나선다면 과학문화의 꽃은 전국에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강** 자녀들이 과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설명을 잘 해 주느냐 하는 것도 과학문화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과학문화사업의 주된 대상을 몇 그룹으로 증점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고 둘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학부모님들입니다. 서두에서 과학채널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채널의 주요 대상도 학부모들입니다. 또한 여러 방송사와 협력사업 하는 것, 이러한 사업들의 주요 타깃도 바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과학문화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강** 이공계 출신 여성 가운데 취업한 사람들은 10%가 조금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과학문화의 확산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최** 우선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하지 못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우리 재단에 초빙해서 각종 과학문화사업을 위해 함께 일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1차 초빙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 추진할 생각입니다. 여성과학기술자의 경우는 과학문화사업에 아주 적합할 것입니다.

**강**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최** 과학문화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장애 요인은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유능한 과학커뮤니케이터, 과학저널리스트, 전문PD, 시나리오 작가, 큐레이터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국내의 저명 대학 등과 제휴해서 과학문화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제야말로 시대적인 상황이 과학문화에 본격 눈 돌릴 때입니다. 척박한 과학문화의 토대 위에서는 과학발전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과학문화재단의 대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

과기부의 창립 멤버로 과학기술 행정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다고 정평이 난 최영환 이사장.